

성낙소 목사

(1890.5.16-1964.11.30)

생애와 사상



履歴書

本籍 忠清南道扶餘郡世道面花樹里参四番地
現住 京城府崇四洞四番地

氏名

成樂紹

明治拾六年五月拾六日生

學歴

明治拾六年五月より同拾五年拾月まで漢文修業
大正四年拾月より同五年八月まで京城護国軍士官學校卒業
大正九年八月より同拾年拾月まで京城護国軍士官學校卒業

教派ニ於ケル任免事項

大正五年九月敎世軍士官少尉ニ任命ス
大正六年参月同 中尉ニ任命ス
大正七年四月同 大尉ニ任命ス
大正拾五年九月同 士官職ヲ辭ス
昭和五年拾月東京四谷區敎會基督教會横濱敎會主
任牧師ニ任命ス
昭和六年拾月同敎會朝鮮宣敎基督教會管理牧師
ニ任命派遣ス

賞罰共ニ無シ

右之通相違ハ無之候也

昭和七年六月 日

成樂紹

성낙소 목사 약력: '구세군전도관'

- ✓본적: 충청남도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 3의 4번지
- ✓출생: 1893년(명치26년, 실제로는 1890 경인년 생) 5월 16일
- ✓사망: 1964년 11월 30일

학력

- ✓1900년(명치33년) 3월부터 1912년(명치45년) 11월까지
한문수학
- ✓1915년(대정4년) 11월부터 1916년(대정5년) 8월까지 경성
구세군사관학교에서 수학
- ✓1920년(대정9년) 8월부터 1922년(대정11년) 3월까지 경
성 죽첨정(竹添町) 성서학원에서 수학(아현동 경성성서학
원)
- ✓1937년(소화12년)부터 1940년(소화15년)까지 기독교회
선교부 한국인 성서 훈련원 에서 수학

성낙소 목사 약력: '구세군전도관'

1910년대 구세군 사진들





성낙소 목사 약력: '구세군전도관'

***1915년(대정 4년) 11월부터 1919년(대정 8년)까지 부여, 서천, 익산, 영동 구세군전도관에서 목회사역.

- ✓1916년(대정 5년) 9월 구세군 사관 소위(참위) 임명
- ✓1917년(대정 6년) 3월 중위(부위) 임명
- ✓1918년(대정 7년) 4월 대위(정위) 임명
- ✓1919년(대정 8년) 충북 영동에서 독립만세운동 주도.
- ✓1920년(대정 9년) 7월 30일 포교폐지계 제출.
- ✓1922년(대정 11년) 3월 구세군 하사관으로 백의종군하여 정사관으로 복직.
- ✓1926년(대정 15년, 소화원년) 1월 구세군 사관직 사임

●1927년(소화2년) 1월 향촌인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2구 290번지에 '기독지교회' 설립.



성낙소 목사의 '기독지교회' 첫 번째 터, 처가댁 사랑방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2구 290번지)

성낙소 목사의 '기독지교회' 두 번째 터, 처남의 집터
(충남 부여군 세도면 화수리1구 325번지)



성낙소 목사 약력: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1930년(소화5년) 5월 '횡빈조선인기독교회'에 부임.
11월부터 1931년 9월까지 주임목사로 섬김.



횡빈기독교회(1929년)



일본 횡빈조선인기독교회 유재현 목사 부임 환영기념(1931년 11월 8일). 성낙소牧사는 이 교회를 1930년 5월에 부임하여 11월부터 1931년 9월 포교관리자로 귀국할 때까지 주임목사로 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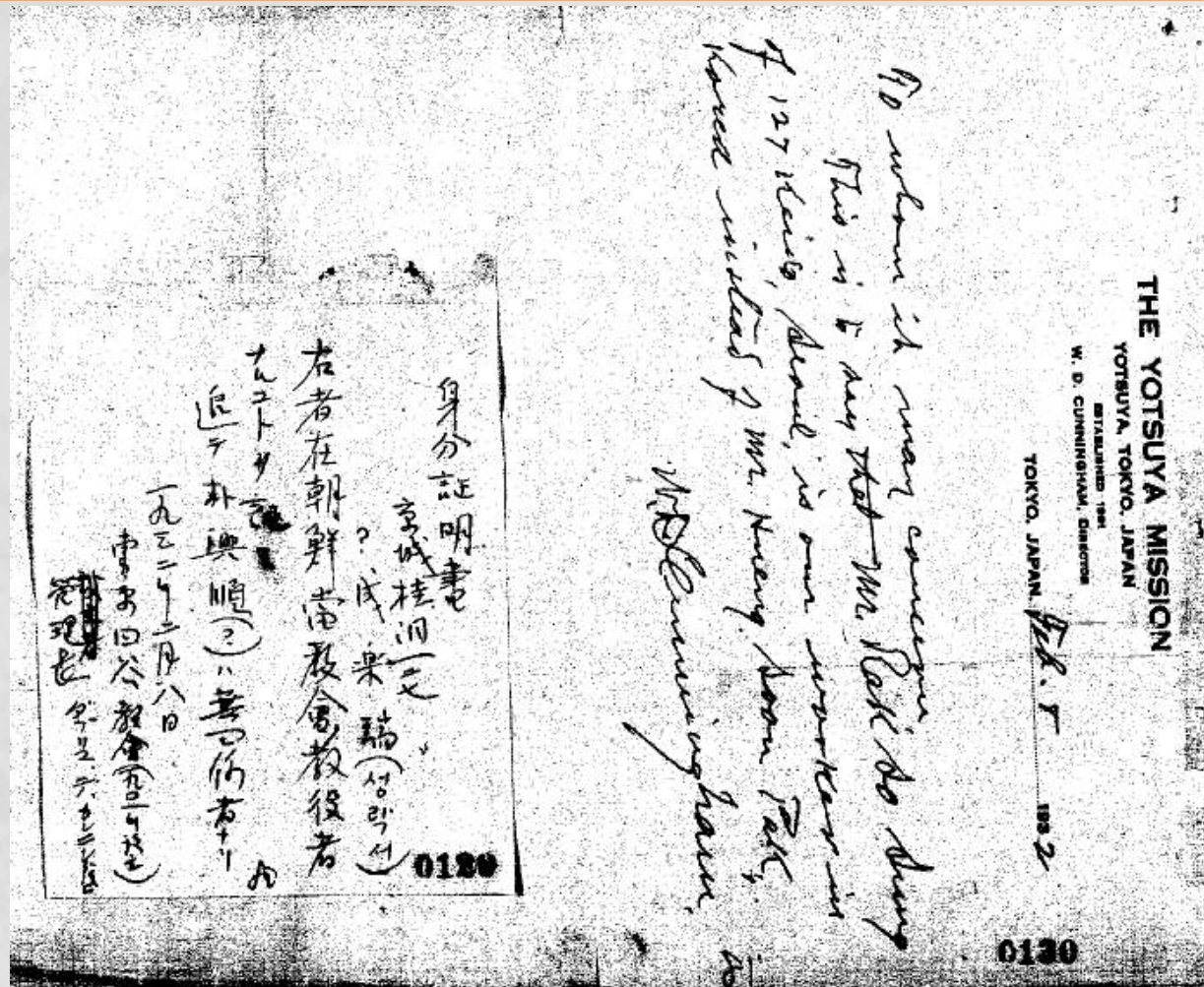
성낙소 목사
1930년 5월부터 1931년 9월까지
일본 횡빈기독교회를 섬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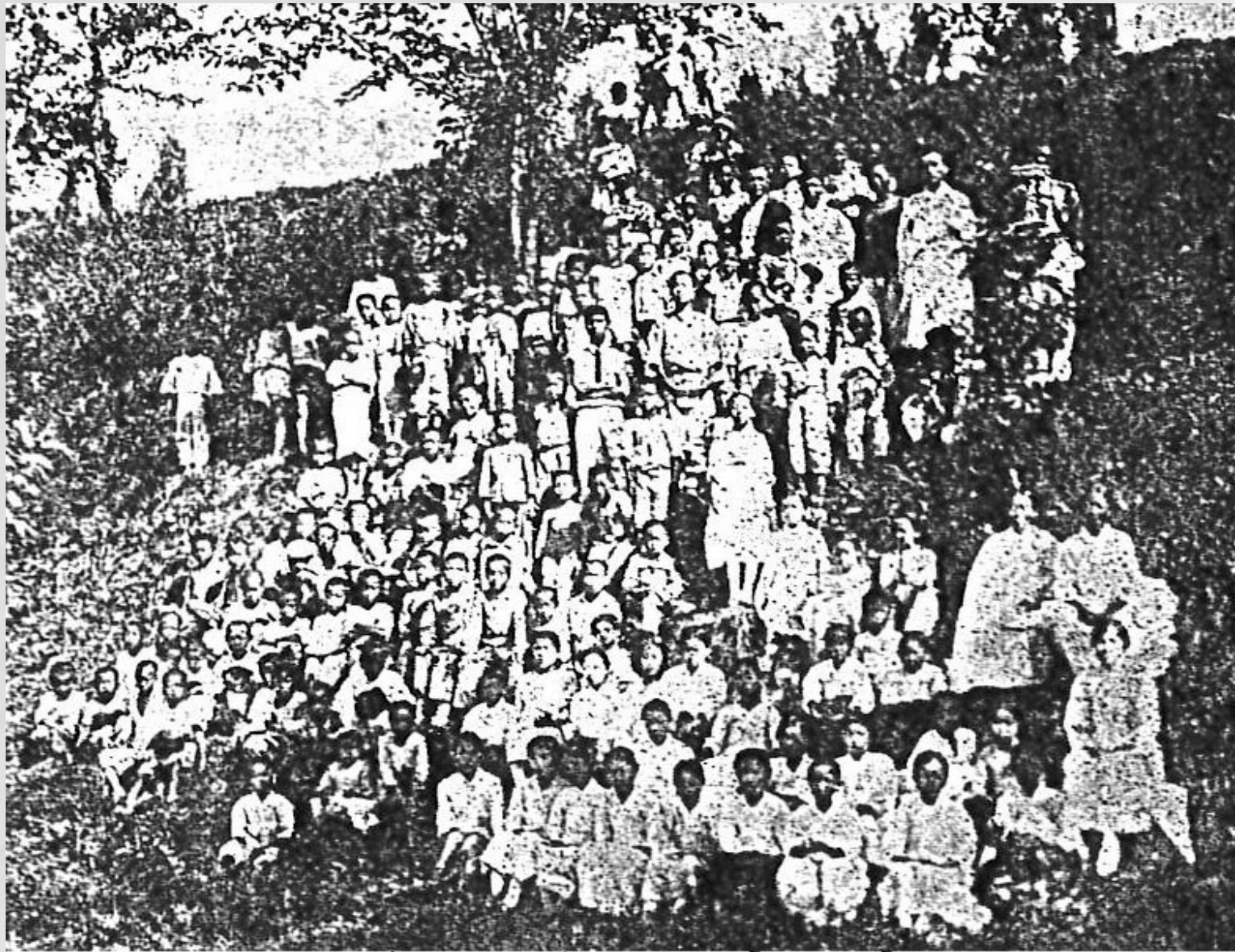


유재헌 목사(1931년말)
1931년 5-6월 삼하도기독교회를 임시로 섬기다가
1931년 11월 8일에 횡빈기독교회에 복임하였다.

성낙소 목사 약력: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1931년(소화6년) 9월 하순 동경사곡선교회 조선지역 포교관리자로 입국. 11월 경성 계동 127번지 임지에 부임.





서울 선교기지 일요학교 어린이들과 교사들
(1929년 8월 4일 촬영,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 박흥순 목사)

✓계동 127번지의 교회를 송4동으로 옮기고, 그곳에
주일학교(유치원)을 설립하였다(1932년 3월 14일).



성낙소 목사(뒷줄 우측 끝)가 조선기독교회 포교책임자로서 1932년에 개교시킨 경성기독교 송4동 주일학교

성낙소 목사 약력: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1932년(소화7년) 초에 경성 제1교회를 계동 127번지에서 숭4동 4번지로 이전.

- 1932년 6월 11일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조선총독부 기록으로 본 한국 그리스도의 교회들의 명칭

1.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성낙소) :
1932.06.11-1936.07.08 (**요츠야선교회**)
2. **기독교회** 조선선교회(이인범, 신신근) :
1936.07.08-1945.08.15 (**요츠야선교회**)
3. **기독교회**(J. 마이클 쉐리, 존 T. 채이스, 김요한) :
1935.04.25-1944.06.26 (**협의회, 총회**) - 해방 후 복원
4. **기독의 교회**(基督の教會, 동석기) :
1937.05.12.-? (**교역자회**) - 해방 후 복원

1,2,3은 '그리스도인의 교회들/그리스도의 교회들' (Christian Churches/Churches of Christ, 유악기)의 소속이고,
4는 '그리스도의 교회들' (Churches of Christ, 무악기)의 소속이다.

● ‘요츠야선교회’의 조선포교관리자들

● ‘동정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들

✓ 제1대 성낙소 목사 1932.06.11-1936.01.10

▪ 3개 교회 계출: 기독교회 경성교회(성낙소), 기독교회 아현교회(김문화), 기독교회 인천교회(성낙소).

✓ 제2대 이인범 목사 1936.01.10-07.08

●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들

✓ 제1대 이인범 목사 1936.07.08-1943.09.17

▪ 1936.09.04 신신근(송현기독교회), 김영배(유정기독교회)의 포교계 및 성낙소, 김문화의 포교폐지계 계출.

▪ 1936년 12월말까지 성낙소 명으로 된 모든 것을 이인범 명으로 계출.

▪ 1937.05.10 오봉기독교회(장신주), 방현기독교회(김성산),

▪ 1937.05.12 김상익(마장정기독교회), 용포동기독교회, 문인동기독교회(최성진),

▪ 1937.06.21 정삼선(금곡정기독교회),

▪ 1937.10.31 유정기독교회 ‘화정’으로 포교소명칭변경계 계출,

▪ 1937.11.04 김태희(마산기독교회), 이난기(염리기독교회),

▪ 1938.08.22 윤낙영(영등포기독교회) 계출.

- 1939.01.31 김태희(대구부 덕산정기독교회),
- 1940.03.09 송기준(마산기독교회),
- 1940.03.11 임준식(인천부 대화정기독교회),
- 1940.03.15 신마산기독교회(송기준), 구마산기독교회,
북마산기독교회,
- 1940.08.19 경성부 대흥정기독교회(임공철),

▪1942.02.01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현천리기독교회 계출.

✓제2대 평산 무웅(신신근) 1943.09.17-해방 때까지

- 1943.09.30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계출,
- 1943.09.30 아현정기독교회 포교담임자변경계
(이인범을 송산 의웅으로) 계출,
- 1944.09.30 염리정기독교회 포교담임자변경계
(이난기를 유지욱으로) 계출.

● ‘기독교회’의 포교관리자들

✓제1대 J. 마이클 셸리 선교사: 1935.4.25-1937.02.25

✓제2대 존 T. 채이스 선교사: 1937.02.25-1941.03

1937.09.06 채이스 선교사 포교계 계출,

1937.06.23 기독교회 신당정 교회(김요한) 계출,

1937.10.10 기독교회 돈암정 교회(최상현) 계출,

1939.03.29 기독교회 경성 내수정 교회(성낙소) 계출,

1940.01.23 기독교회 경성 돈암 제2교회(김문화) 계출,

1940.05.17 기독교회 정릉리 교회(박판조) 계출,

1940.10.26 기독교회 왕십리 교회(백낙중) 계출.

✓제3대 김요한 목사: 1941.03-1944.06.26

1940.09.17 기독교회 초도리 교회(송암 승웅) 계출,

1944.06.26 포교관리자폐지계 계출

1944.06.30 ‘기독교회’ 포교자 및 포교소 폐지계 계출

포교자: 김요한, 존 T. 채이스, 김문화, 산천룡, 송암 승웅,

포교소: 신당정 교회, 왕십리 교회, 돈암 제2교회, 정릉리 교회, 초도리 교회

4. '기독교의교회'(동석기 전도자)

✓1930.11 미국에서 귀국, 고향 북청(Sanki Hoksei, 三岐北西)에서 '기독교의교회' 개척.

✓1937.05.12 '기독교의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제출
(경기도 경성부 다옥정 48번지).

1937.07.06 다옥정 기독교의 교회(동석기) 제출,

1937.07.06 동교 기독교의 교회(강문석) 제출,
(경기도 경성부 동교정 59번지),

1937.09.23 경주 기독교의 교회(강문석) 제출,
(경북 경주군 경주읍 노서리 77번지) .

1937.10.27 대현 기독교의 교회(이용주) 제출,
(경기도 경성부 공덕정 산6의 57번지).

✓동석기 전도자의 함경남도 북청군의 교회들

1938.04.04 서흥 기독교의 교회, 함전 기독교의 교회, 빙애
기독교의 교회, 만경 기독교의 교회 제출,

1938.05.07 수동 기독교의 교회, 죽평 기독교의 교회, 수서
리 기독교의 교회 제출.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설치계 신청서

布教管理者設置届

今般布教管理者ヲ設置致候ニ付布教規則第七條
第三項ニ依リ左記事項ヲ具シ此般及御届候也

昭和七年六月十一日

京城府崇四洞四番地

成榮紹

朝鮮總督

記

發

一 宗教及其教派 一 東京四番宣教會基督教會

二 教規 (別錄ヲ以テ提出ス)

三 布教所 (於テハ觀教)

四 巡迴布教

五 家庭傳道

六 通信布教

七 路傍傳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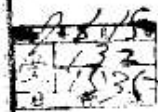
八 布教管理者ノ權限

九 布教監督ノ方法

十 布教管理事務所ノ位置
京城府崇四洞四番地

十一 布教管理者ノ氏名
以上

成榮紹



- 성낙소 목사는 1931년 9월 입국하여 부여에 머물다가 11월에 상경하여 서울 제1교회인 경성기독교교회(계동 127번지)에 부임,
- 포교관리자로서 인천 난도(남동)교회 감독목회(요츠야선교회 제15번째 교회로 승격, 침례 52명),
- 경성기독교교회를 계동에서 송4동으로 옮겨 주일학교(유치원) 설립(1932년 3월 14일),
- 기독교회 인천교회 감독목회(침례 18명, 요츠야선교부 제16번째 교회로 승격).
- 1932년 말 **경성기독교교회**를 수창동 106번지로 옮기고, 12월 17일 **경성기독교교회**(성낙소), 12월 24일 **아현기독교교회**(김문화), 1933년 2월 1일 **기독교회 인천교회**(성낙소)를 조선총독부에 제출.
- 성낙소의 전임자들은 조선총독부에 포교계를 제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전도활동. 커닝햄은 사이토 마코토의 구두허가를 승인으로 착각. 따라서 1924.05-1932.05까지 8년간의 흔적이 국가기록원에 남아있지 않음.

●**사이토 마코토**: 조선총독부에 종교과를 신설하여 기독교에 우호 정책을 펼쳤던 조선총독부 총독(1919-27, 1929-31) 및 일본 정부 수상(1932-1934)을 지낸 **사이토 마코토**(齋藤 実, 자작) 부부는 커닝햄 부부와 절친한 이웃이자, 요츠야선교회의 한국선교를 허가한 인물.

●1932년 말 혹은 1933년 초 **이원균**이 평북 구성군 호젠(방현)에 파송되어 1937년 중반까지 성공적으로 사역.

●1933년 6월 5일 동경 심천조선기독교교회(제10교회)의 담임목사 **이인범**이 조선기독교교회 포교책임자로 피선. 동년 9월에 입국하여 **기독교회 인천교회**에 부임하였으나 포교자 및 포교관리자 변경계를 제출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활동. **마이클 셸리가 이 사실을 1935년 5월 25일 문제 삼음으로써 커닝햄과 분쟁.**

●**윌리엄 커닝햄의 집요한 노력과 사이토 마코토의 협력으로 이인범은 1936년 1월 10일 포교관리자변경계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제출.**

●성낙소 목사는 요츠야선교회로부터 1933년 5월 20일 해임된 후로도 1934년 2월 26일 아현기독교교회에 포교담임자변경계 및 5월 18일 수창동의 경성기독교교회를 적선동 190번지로 포교소소재지변경계를 제출하는 등 **1936년 1월 10일 조선총독부 학무국 사회과에 소환되어 사직서를 쓰기까지 총 4년 4개월(합법적으로는 3년 7개월) 정도 포교관리자 신분을 유지.**

私儀

今般都合ニ依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朝鮮布教
管理者ヲ辭職致候ニ付此段及御屈候也

群祥後進年
百柱日

東京四谷宣教會
基督教會

朝鮮布教管理者 成樂 紹賢

朝鮮總督

殿

1315

4P/

官報掲載

布教管理者變更屆

市放管理者變更届ヲ提出シタル者ナシ如シ

原出	年月日	昭和十一年一月十日
敬求冰名稱	舊管理有氏在	東宮宮登聲聲聲
成樂	經	京畿道在川府松岷堂今文
氏名	所	本寅範

學海司啟

李福元

朝鮮總督府

113.10

完種

7-17

月羊恩者子

1353

回復英譯文

29th July, 1936.

Mr. Leon L. Myers,
President of the Christian

Restoration Association,
Fourth and Elm Street,
Cincinnati, Ohio, U.S.A.

Dear Sir:

In reply to your letter of the 25th May last in which you asked for information regarding the mission work of the Tokyo Yotsuya Mission in Chosen we beg to give you the following indications.

The Tokyo Yotsuya Mission, appointing Seirakusho (Song Nak So) the superintendent of the mission work here, presented its application to commence work on the 11th June 1932.

There are now three churches recognized by the Government, Seirakusho resigned his post as superintendent on the 10th January 1936, and on that day Rinhan (Yi In Pom) was reported as successor to Seirakusho.

The churches above mentioned are;

1. The Ak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57 Aken-cho, Keijo.
2. The Keijo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190 Sekisen-cho, Keijo.
3. The Jinsen Church of Christ, the Yotsuya Mission, Tokyo.
No. 89 Shokenri, Jinsen.

Yours faithfully,

Director of the Education Bureau

1456

585

朝鮮總督府統計年報 1933年度 第416表

『1933年(度)末 教會堂 布教所 講義所 現況』

基督教	
天主教	327
朝鮮耶蘇教長老會	2,583
基督教朝鮮監理會	814
聖公會	87
露國正教會	6
日本基督教會	12
日本메소제스트教會	16
日本組合基督教會	7
第七日安息日耶蘇再臨教	129
東洋宣教會	149
救世軍	74
朝鮮基督教會	27
東洋宣教會호리네스教會	7
朝鮮會衆基督教會	26
基督同信會	2
東京四谷宣教會基督教會	3
總數	4,269

‘조선선교회 기독교회’(이인범 목사)

- 1936.01.10 ‘동경사곡선교회 기독교회’ 포교관리자 변경계 제출(경기도 인천부 송현리 50번지).
- 1936.07.08 교파명변경계(‘기독교회 조선선교회’) 제출.
- 1936.09.04 신신근(송현기독교회), 김영배(유정기독교회)의 포교계 제출.
- 1936.09.04 성낙소, 김문화의 포교폐지계 제출.
- 1936년 12월말까지 성낙소 명으로 된 모든 것을 이인범 명으로 제출.
- 1943.09.17 기독교회 조선선교회 포교관리자변경계(이인범을 평산 무웅으로) 제출.
- 1943.09.30 평산 무웅, 이인범의 포교폐지계 제출.
- 1949년 1월 3일 금산제일장로교회 부임.
- 1951년 금산에서 별세

三

2

準

朝鮮總督府
11.8.21
官報掲載

學務局長

社會課長

事務官



主任

官報掲載案

記帳及校合済

教派名變更届

教派名稱變更ノ旨

届出デタル者左ノ如シ

届出年月日	舊教派名	新教派名	布教管理事務所所在地
昭和十一年七月八日	東京四谷宣教會 基督教會	基督教會 朝鮮宣教會	京畿道仁川府松岷里千倉地

一月半息各手

34f

0447

11.8.21
11.8.21
11.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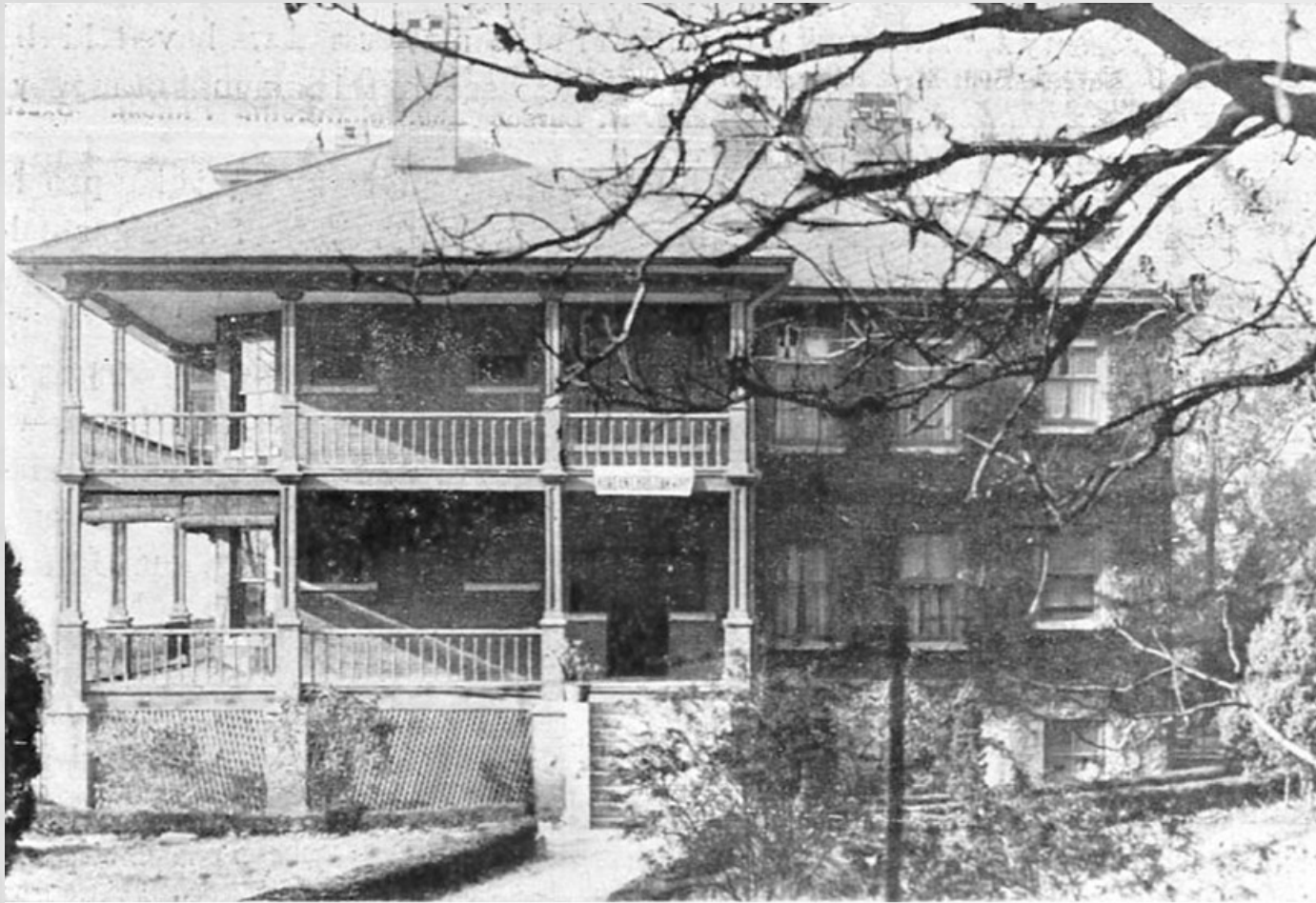
성낙소 목사의 '조선야소교회'에서의 활동

✓1936년 9월 4일 자신의 포교폐지계가 제출되자, 경성기독교회를 적선정 190번지에서 내수정 106-1번지로 옮겨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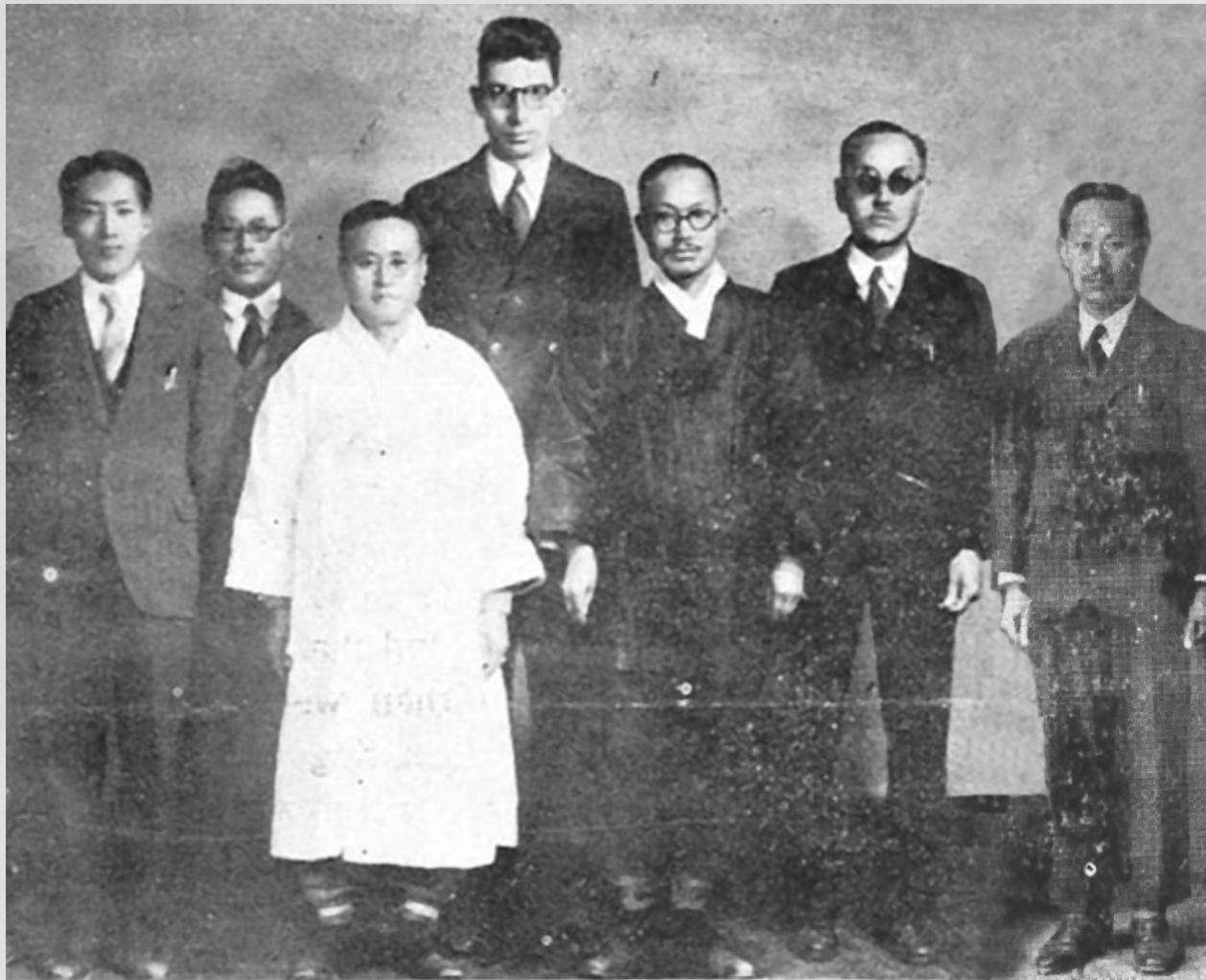
✓1938년 3월 31일 조선야소교회는 성낙소 목사(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번지 거주)의 포교계를 포교규칙 제2조에 의거,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소설치계를 포교규칙 제9조에 의거, 경성교회(경기도 경성부 내수정 106의 1번지) 포교담임자선정계를 포교규칙 제10조에 의거 제출하였다<조선총독부관보 제4038호 5면(소화 15년 7월 8일)>.

✓성낙소는 조선야소교회에 가입한지 얼마 못되어 김문화의 연락으로 1937년 4월경 존 T. 채이스와 재회하였고, 1938년 11월 4일 채이스로부터 침례를 받았으며, 1939년 4월 중순 전에 채이스의 제3교회로 편입되었다. 또 성낙소는 1937년경부터 한국인성서훈련원에 재학하여 1940년 3월 25일에 졸업하였다.

✓동석기는 1939년 9월에 내수정 106번지 건물을 매입하여 성낙소에
게 임대하였다가 1945년 9월부터 오늘의 내수동 교회(교역자회)를 시
작하였다. 성낙소는 1943년 7월 7일 내수정교회를 필운동 289번지로
옮겨 1946년에 필운동교회로 개명하였다.



영국해외성서공회가 소유했던 이 건물에 세들어 살고 있던 채이스 선교사는 1939년부터 매입을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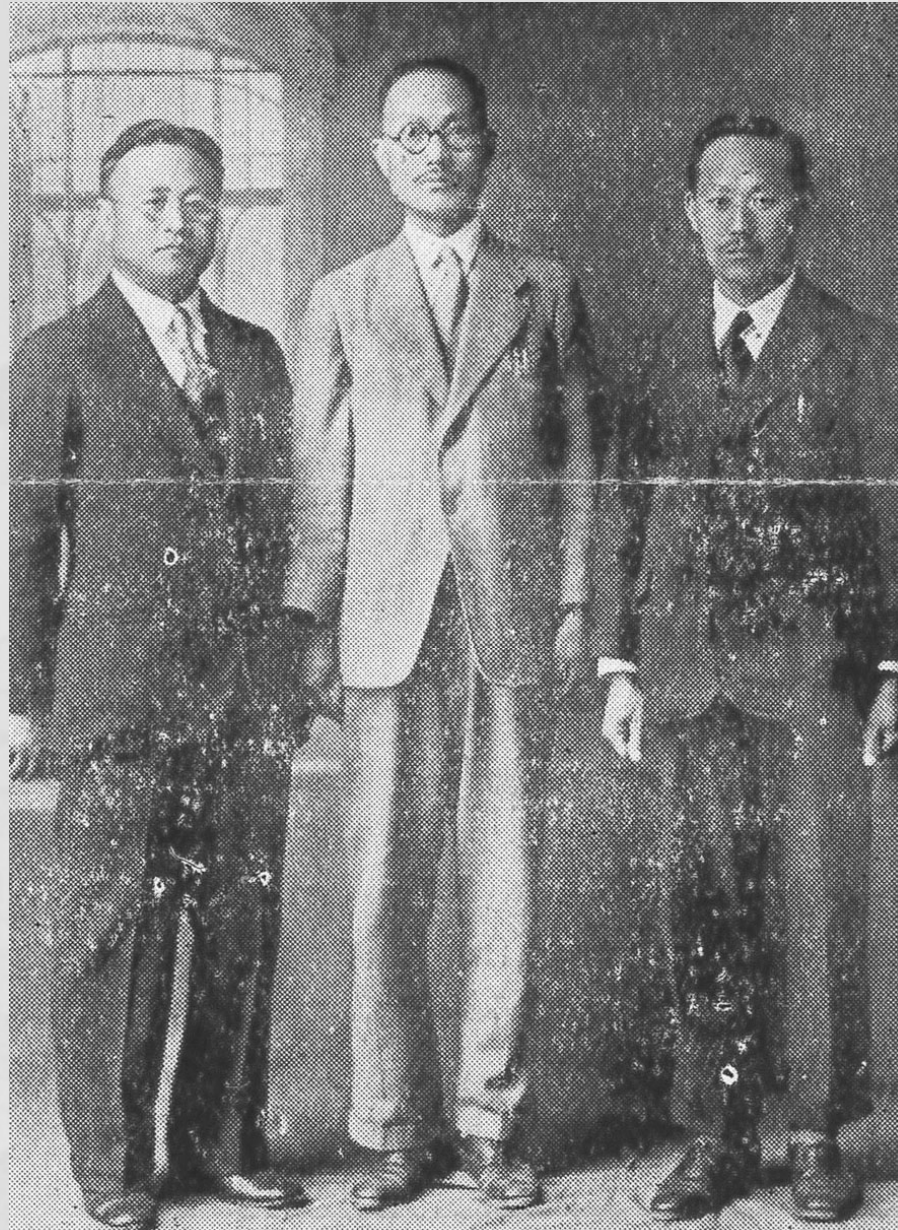


존 T. 채이스 선교사의 내국인 사역자들(1937-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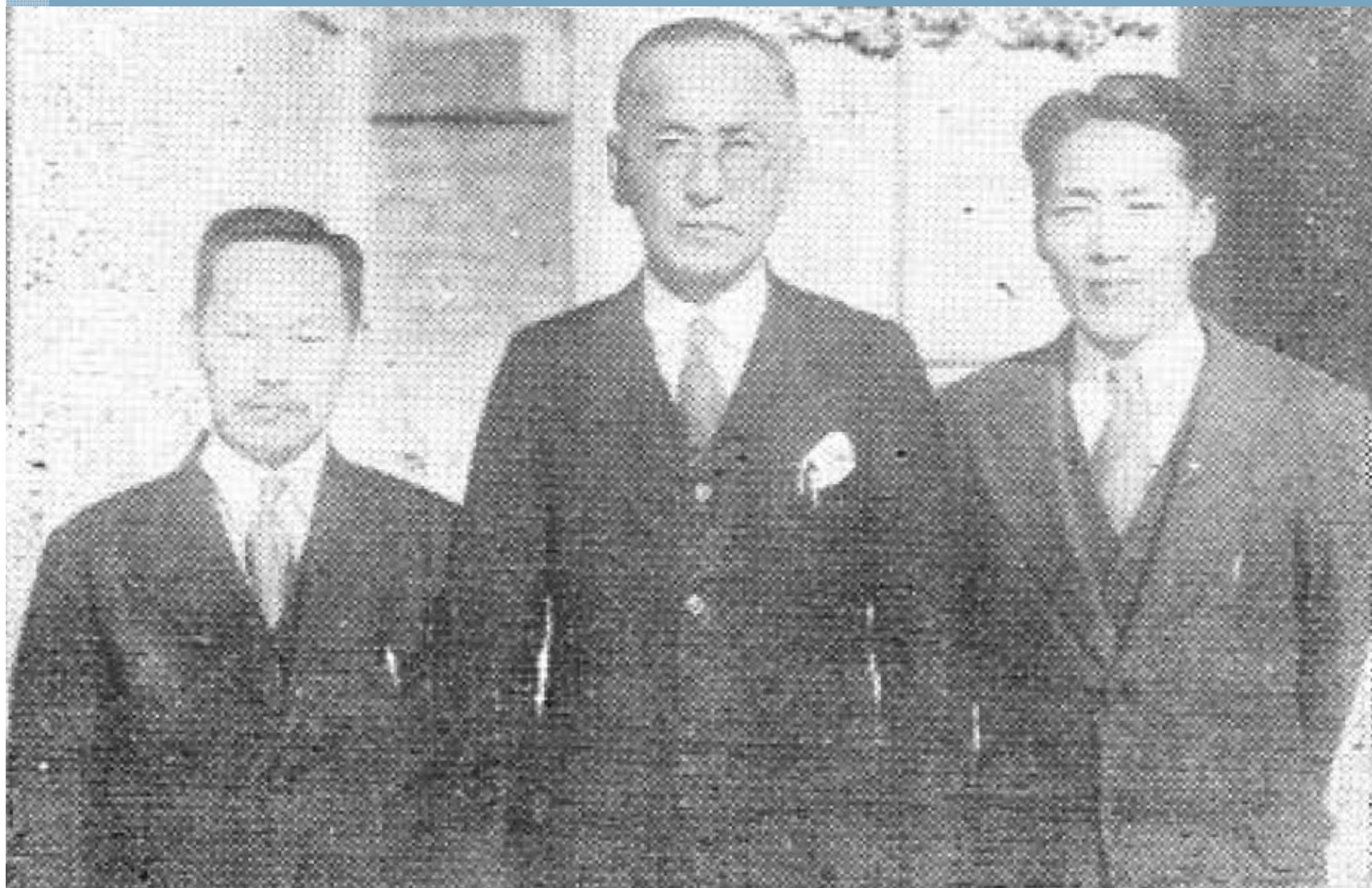
좌측부터 박판조 목사(청량리교회), 백낙중 목사(공덕교회), 김요한 목사(신당정교회),
채이스 선교사, 최상현 목사(돈암정교회), 김문화 목사(산동암정교회, 성낙소 목사(내수정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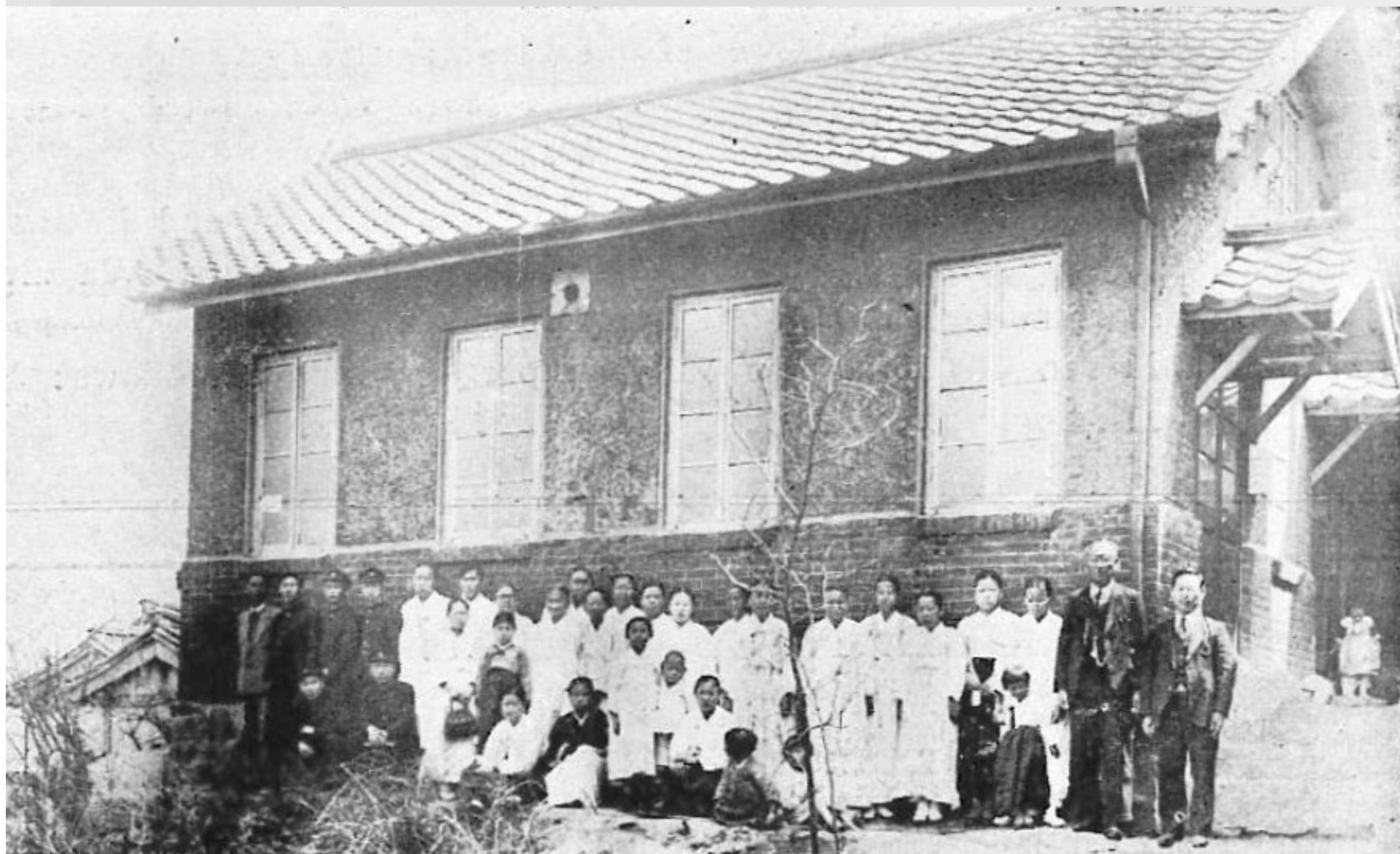
채이스 선교사가 1936년에 설립한 기독교회선교부
(The Korean Christian Mission) 직인



체이스 선교사의 제교회 신당정교회 담임 김요한 목사(1937년),
제2교회 동암정교회 담임 최상현 목사(1937년),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1939년)



1940년초, 좌측부터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내수정교회 담임 성낙소 목사
제4교회 산동암정교회(박판조 목사가 개척) 담임 김문화 목사, 제5교회 청량리교회 담임 박판조 목사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와 성악소 목사(1939년)



채이스 선교사의 제3교회: 내수정 그리스도의 교회, 설교자: 성낙소 목사(1941년 2월말-3월중순경 촬영)

CHURCH NO. 3. R. S. SUNG, PREACHER

한국의 기독교회들

- 1941년 4월 1일부터 종교법이 시행됨에 따라 요츠야 선교부는 한국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주던 후원금과 임대료의 1941년 한해 치를 일시불로 앞당겨 지불한 후 한국선교중단.

- 커닝햄 사망 이후 1936년부터 모아왔던 ‘커닝햄 한국기념기금’에서 충당.

***1941년 2월 24일부터 3월말까지 방한한 채이스는 박해상황의 심각성을 목격 및 청취한 후, 선교부와 힐 및 자신의 소유물 가운데 팔 수 있는 것은 모두 팔아 1941년치 후원금을 남겨놓았고, 선교부를 세놓아 일정한 수입을 얻도록 조치하였다.



채이스 선교사가 1947년 2월 초에 방문했던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채이스는 이 교회를 예전처럼 내수동교회로 불렀으며, 선교지원금 없이 마련된 이 예배당을 희생의 결과라고 적었다.

‘서울성서신학교’에서 후학 양성

- 성낙소 목사는 힐 요한 선교사가 개교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1949-1959년 사이에 교수로 재직.
- 존 J. 힐 선교사 1939년 6월 21일 입경.
- 1940년 11월 16일 본국으로 강제 철수.
- 철수 8년 3개월만인 1949년 2월 18일 재입경.
- 연지동의 임대건물에서 한국(서울)성서신학교 개교.
- 신학교를 종로구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옮김.
- 공산군 남침으로 1950년 6월 26일 일본으로 피난.
- 수복 후 1950년 11월 입경하여 장충동의 임대건물에서 신학교 개교. 중공군 개입으로 12월 입국 5주 만에 다시 일본으로 철수.
- 1951년 7월 3일 입국하여 서대문구 송월동 선교부에서 8월 4일 ‘그리스도의 교회 보육원’(후에 부평으로 옮김) 시작.
- 1955년 7월 5일 귀국.
- 해롤드 테일러 선교사 1955년 11월 입국하여 1959년 6월 3일까지 전 재산(송월동 32-6번지 신학교 3층 건물과 선교부 건물 및 부지)을 매도하고, 1963년 초 역촌동 새 캠퍼스로 이전



서울성서신학교는 1937년 채이스에 의해서 한국성서훈련원으로 시작되었으나
1940년 3월 25일 첫 졸업생을 배출한 이후 선교사들의 철수로 문을 닫았다가
1949년 봄학기에는 개교하였으며, 6.25동란과 캠퍼스 이전으로 몇 차례 중단되었었다



한국성서신학교 교수진: 좌측부터 성낙소 목사, 필요한 선교사,
최상현 목사(6.25동란 때 납북), 백낙중 목사(6.25동란 때 피살)



*Korean Christian Bible Seminary
Dec. 9, 1949*



만교 최준선 목사
(1921-2001.09.08)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1949년말-50년대초)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1952년)



앞줄 좌측부터 성낙소 목사, 김동수 통역, 폴 잉그람(1953년경)



서울성서신학교 졸업식 기념(1964년 3월 9일)
앞줄 우측부터 이종만, 패튼, 둘 건너 최윤권, 구광서, 테일러, 성낙소(이상 목사)

성낙소 목사의 해방 이후 활동 및 사상

- 경성기독교교회(종로구 내수정 106-1번지)는 필운동으로 이전하기 전에 강제 또는 자신 폐쇄된 것으로 추정된다.
- 1943년 종로구 필운동 289번지의 대지 42평 초가를 매입하여 7월 7일 옮겨간 후 해방 때까지 비밀집회를 갖다가 해방이 되자 교회를 복원하였고, 1946년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로 개명하였다.
- 1946년 8월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 선언문’ 발표.
- 힐 요한 선교사가 개교한 ‘서울성서신학교’에서 1949-1955년 사이에 교수로 재직.
- 1952년 7월 3일 <신약교회 목회학> 발행.
- 1954년 6월 7일 김진영 전도자와 함께 유무악기 통합시도.
- 1959년 12월 말 자서전 <기독교의 교회와 성낙소와의 관계> 저술.
- 1964년 11월 30일 별세.

‘그리스도의 교회 합동 선언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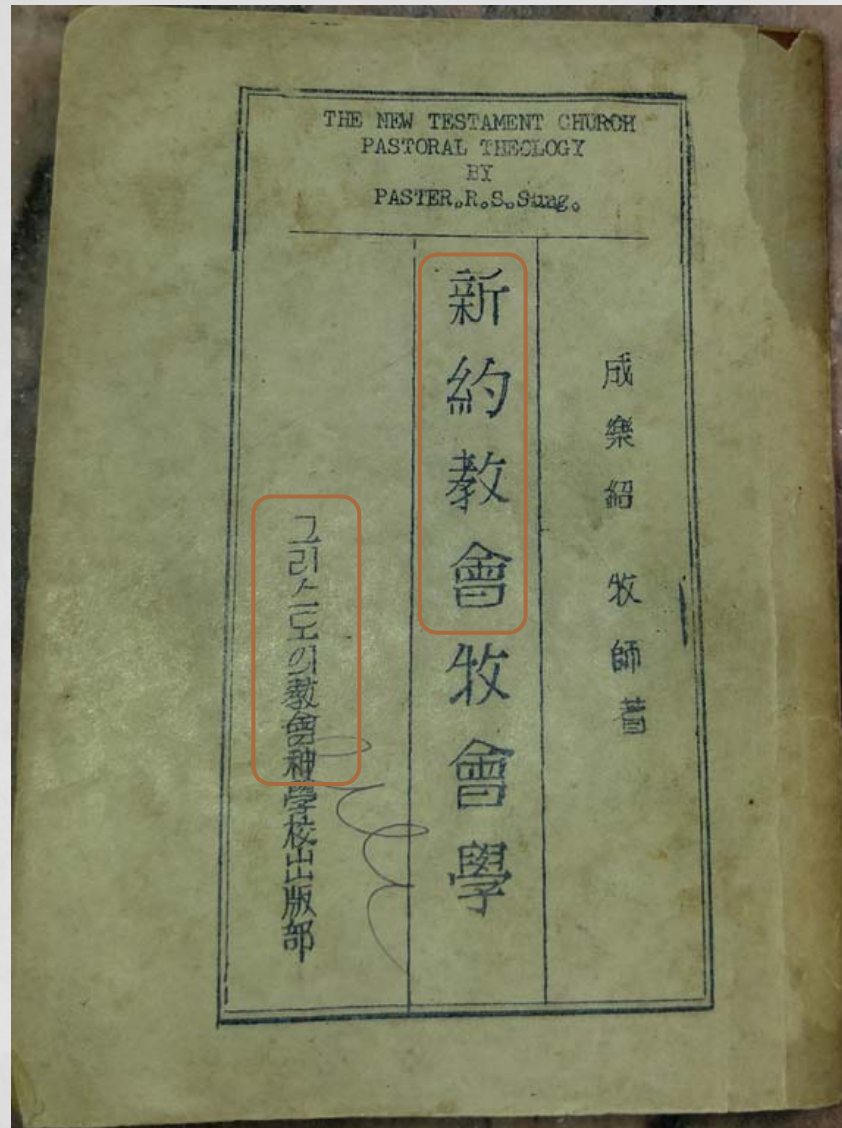
- 신약교회로의 환원과 일치 운동을 선언
 -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자. 신약시대의 교회로 돌아가자면, 신약시대의 교회를 찾아야 한다. 신약시대의 교회는 신약성경 중에서 찾아야 한다.”
1. 교회 창립자와 머리를 찾자 -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마 16:18; 엡 5:23). 각 교파의 창립자와 머리는 누구인가? 카톨릭은 저스테니안, 성공회는 헨리 8세, 루터교는 마틴 루터, 침례교는 코날드 그레벨, 장로교는 존 낙스, 칼빈교는 칼빈, 감리교는 요한 웨슬레, 구세군은 윌리엄 뵈드, 성결교는 카우만이다.
 2. 교회 명칭과 터를 찾자 - 그리스도의 교회가 바른 이름이며, 그리스도의 터는 그리스도이다(마 16:18; 롬 16:16; 고전 3:11). 그러나 각 교파의 명칭은 성경에 전혀 없다.
 3. 교인의 명칭을 찾자 - 오직 그리스도인이라(행 11:26; 갈 2:24; 벧전 4:16). 그러나 각 교파교인의 명칭은 성경에 없다(장로교인, 감리교인 등 ...).
 4. 교인이 되는 방법을 찾자 - ㄱ) 믿고 침례받음(마 28:19; 막 16:16). ㄴ) 회개하고 침례받음(행 2:38). ㄷ) 신앙을 고백한다(행 8:37). 그런즉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받으면 사죄 구원하는 동시에 성신을 선물로 받는다. 침례는 죄의 몸이 죽고 부활과 신생을 얻는다(롬 6:4; 골 2:2). 물과 성신으로 중생한다(요 3:5). 약식 세례는 성경에 없다. 이는 기원 753년에 로마법왕 스티븐 2세가 애돌프스의 집에 시작된 것이다.

5. 침례는 누가 행할 수 있는가 성경에서 찾자 - 목사, 집사, 성도들이다. 침례받는 자는 누구나 행할 수 있다(행 2:38-41; 8:38; 9:17-18). 이상은 사도 집사 빌립이 성도 아나니아가 시행하였음. 목사만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은 교파들의 주장이다.
6. 그리스도인이 되면, 첫째로 하나님께 예배한다. 예배일을 찾자. 칠일 중 첫날은 주일이요, 일요일이 아니다(행 2:41-42; 20:7). 이 날은 주님이 부활하신 후 일곱째 안식일 다음날인 오순절날 성령강림하신 날이요, 이 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 명이 침례받아 제자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된 날이 주일이요, 유대교에서 지키는 안식일이 아니다.
7. 신약시대 교회에서 주일을 예배 일로 지켰는가? 주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위해 모였다(행 2:41-42; 20:7). 주일에 주의 만찬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안식일을 지켜 유대교인 율법으로 돌아감이 어떨까? 그리스도의 교회는 유대교가 아니다.
8.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지상명령인 성경만 믿는다. 성경 이외에 헌법이나 규칙은 죄가 된다(계 22:18).

서기 1946년 8월 일

서울 사직공원 내 그리스도의 교회 성낙소 선언서

<신약교회 목회학>



<신약교회 목회학>에 나타난 '신약교회' 인식

1. 지상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인식이 분명하였다.

본서 '제18장 그리스도의 교회와 교파교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주장을 읽을 수 있다.

첫째, 교회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교회'이어야 한다.

둘째, 교파교회의 명칭은 주님의 뜻이 아니다.

셋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넷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은 교회인 동시에 그리스도의 몸이며, 그 몸의 지체이다.

여섯째, 교파적 신앙과 주의를 경계하여야 한다.

일곱째, 모든 교파는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여덟째, 교파분열은 비성경적이다.

아홉째, “신앙하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침례를 수(受)하고, 신자가되면 주일성찬으로 예배하는 신약 중 그리스도의 교회”가 유일(唯一) 교회이다.

2. 신약성경에 기초한 교회, 즉 신약성경교회에 관한 인식이 분명하였다.

책의 제목을 “신약교회 목회학” 이라고 정한 것이나 서언(緒言)에서 “신약교회인 그리스도의 교회”란 표현을 쓴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첫째, 교회는 하나요, 그리스도의 몸이며, “사도들이 신봉(信奉)하던 그 신경(信經)과 그 교리(敎理)와 그 신학(神學)을 성경 그대로 고수(固守)”(제3장, 2절)하는 신약성경교회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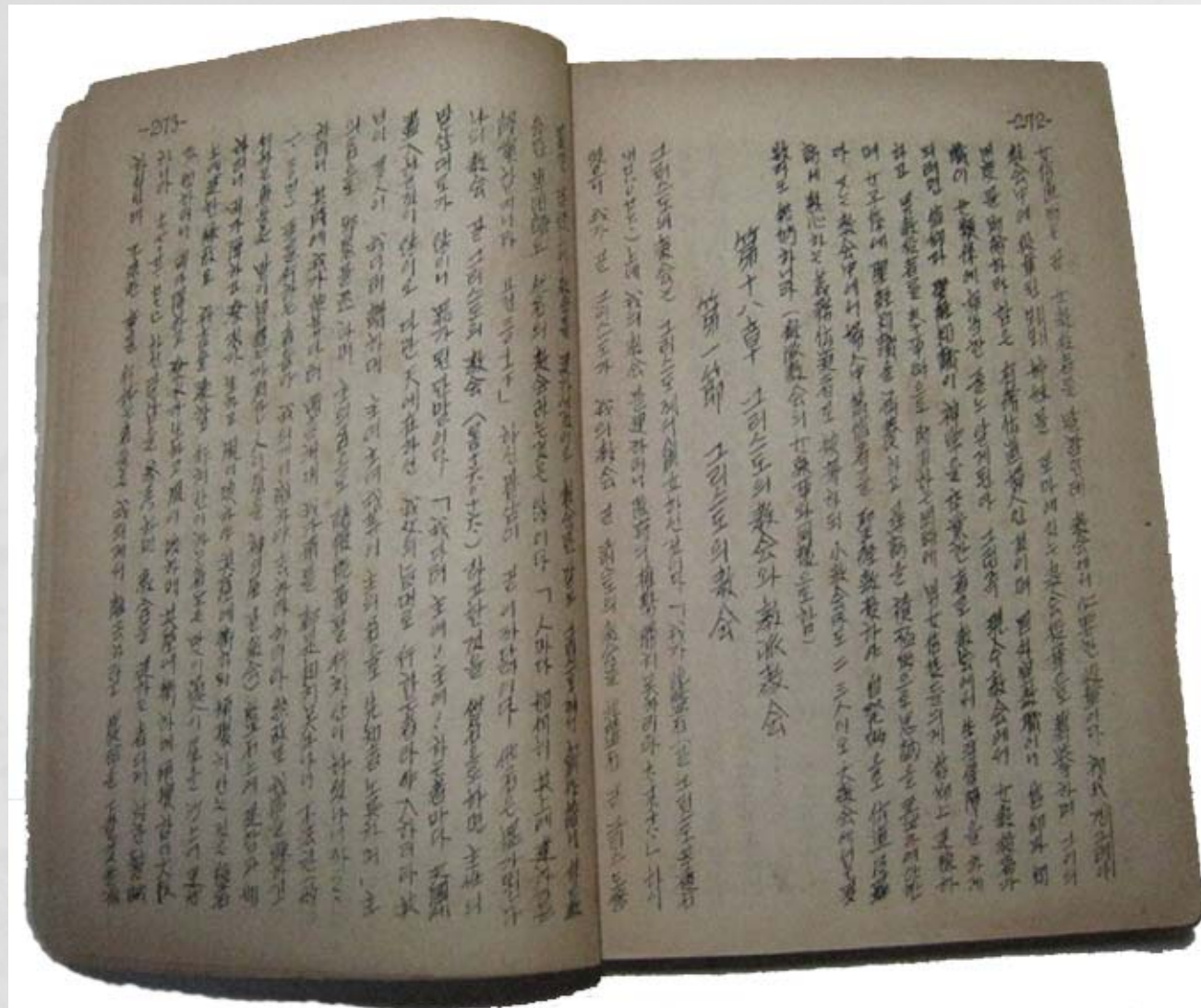
둘째, 교회는 신약성경의 가르침과 실천, 즉 사도전통을 모본(模本)하여야 한다는 성경해석학적 인식이 분명하였다. 특히 성서 중 신약시대의 신앙교리를 강조해야 할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교회가 주님의 성훈(聖訓)과 사도들의 교훈으로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제3장, 3절, 3조).

셋째, 교회의 조직과 치리는 인위적인 교리를 배척하고, 신약교회 교리는 성서중교리(聖書中敎理)로 할 것을 강조하였다(제3장, 3절, 3조).

넷째, 그리스도는 교회는 ‘성경이 명한대로’ 혹은 ‘하나님이 명한대로’ 따라야 한다는 신념(信念)이 철두철미(徹頭徹尾)하였다.

聖書を減하지도 말고, 異點을 加하지도 말고, 新約書中에 있는 그리스도의 教會로 還元하여 一教會가 되도록 祈禱하며, 役事할지니다(제18장, 3절).

우리가 聖經中에 있는 聖禮를 行할 때에는 聖經中에 記한 法을 依할지니, 何 敎派立法이나 何人의 意見이나 方便을 推尋하지 말고 聖書에 根據하여 如何히 할지니라(제12장, 2절, 3조, 2).



3. 그리스도인 침례(Christian Baptism)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첫째, '제12장 목회자와 성례급예식(聖禮及禮式), 제2절 침례(浸禮)'에서 약식세례는 서기 753년에 시작된 것으로써 “일종(一種) 허명(虛名)의 의식화하여진 것” 이므로 “차(此)는 성경위반이다.”고 하였다.

둘째, 침례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깨달아 주님을 믿고 과거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신앙을 고백한 후에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誰든지 福音을 聽하고, 覺而信主하고, 過去 不信 不義 不法 不行과 其他諸般 罪惡을 眞心으로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할 수 있고(제12장, 2절, 1조).

셋째, 침례는 죄로 물든 육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고, 물속에 장사하였다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함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의 젖을 먹고 성장하여 성결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罪의 몸은 十字架에 釘死하고, 水中에 葬事하였다가 主任의 復活에 合하여 水과 聖神을 重生(新生)하여 上帝의 子女로 道の 乳으로 長成聖潔하나니(제12장, 2절, 1조).

넷째, 침례는 주님께서 친히 받으시고, 합당하게 여기셨으며, 십자가에서 고난의 침례를 받으신 후에 승천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주신 대(大) 사명(使命)이며, 친히 아끼시고, 세우시고, 명령하셨으므로, 인간이 감(敢)히 변개(變改)치 못할 성례(聖禮)임을 피력 하였다.

浸禮를 主께서 當身이 親愛하시고 立하시고 命畀하였으니 人間으로서는 敢히 變치 못할 것이오, 變치 못할지니라(제12장, 2절, 2조).

다섯째,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한 생명(生命)이 세상에 태어나기 까지에는 수정, 배아, 태아, 출산, 성장의 과정을 차례로 거치게 된다. 수정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배아단계나 태아단계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수정부터 출산까지 모든 과정이 필수적이다. 또 출산만 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부모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사죄(赦罪)의 구원도 믿음만으로 혹은 회개만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신앙고백하고, 침례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한다. 성낙소 목사는 이런 뜻으로 “침례는 기독교의 구원방법에 있어서 중대한 성례(聖禮) 중(中) 일(一)이” 된다고 하였다.

救援이 곧 赦罪이다. 信仰하고 浸禮를 受하는 人은 救援을 得할 것이오 하였으니, 信仰만하면 다 되는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又是 “悔改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名으로 浸禮를 受하고 罪赦함을 得하라. 然하면, 恩惠의 聖神을 受하리니” 하였으니, 悔改만 하면 다 된 것이 안이오, 浸禮를 受하여야 한다. 然則 信仰하고, 悔改하고, 信仰告白하고, 浸禮를 受하여야, 救援을 곧 赦罪를 得할 뿐만 아니라, 恩惠로 聖神을 受한다고 主任과 使徒 배드로가 有力하게 말삼하시였다(제12장, 2절, 2조).

여섯째, 그리스도인 침례를 “중생(重生)의 침례,” “죄 사함과 성신을 수(受)하는(행 2:38)” 침례로 인식하였다. 또 침례를 받음으로 구원을 받고(막 16:16), 죄사(罪赦)함을 받고(행 2:38), 죄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고(롬 6:3-7), 부활하고(고전 15:29), 중생하고(롬 6:5, 골 2:12, 딤후 3:5, 행 2:38), 그리스도로 옷 입고(갈 3:27),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심왕(尋往)하고(벧전 3:21), 성령을 선물로 받는(행 2:38) 유익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우리 그리스도의 敎는 主 여호와 하나님 創造主의 말삼이신 그리스도께서 十字架에 犧牲하시고 復活하사 우리 人類를 贖罪救靈의 光明이 照하여 誰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悔改浸禮를 받으면 聖神이 即時 內住한 重生者가 主의 名으로 祈禱하면 信仰이 점점 長成하여 聖潔의 生活을 할 것이요, 聖神의 結果가 있어야 한다. 異蹟은 赦罪重生의 大하고 聖經에만 있는 異蹟, 요나의 異蹟과 같이 水中에서 重生의 異蹟이다.(제6장, 2절, 8조, 1)

일곱째, 침례의 집행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목사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평신도일지라도 신앙생활이 무흠하면 집행할 수 있음을 성서적인 전거(典據)를 들어 설명하였다.

浸禮 執行者는 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이 聖書中에서 無欠하고, 聖神이 充滿者면 執行할 수 있음. 牧師라도 信仰生活에 聖書的 欠陷이 有한 者는 執禮資格을 喪失하였음으로 執行할 수 없을 것이다. 牧師나 長老나 執事나 平信徒나 聖書的 信仰生活이 無欠한 者가 執行함이 可하고, 牧師만 專行的으로 執行權을 聖書中에 주지 아니하였다(제12장, 2절, 3조, 1).

여덟째, 어떠한 경우에도 약식으로 세례를 베풀어서는 안 되며, 유아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음으로 침례를 줄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幼兒는 天國에 入할 資格이 有함은 예수님이 證明하셨다(太 18:3). 又난 病中에 主의 福音을 覺悟하고 確實한 信仰과 悔改와 告白이 分明하면, 浸禮를 施할 수 있으나, 危篤中 不完全 意識으로 信主한다는 것으로 로마 天主教式으로 하면 안 된다. 浸禮가 안이고 略式洗禮는 容納할 聖書中에 條件이 없는 까닭이다. 囚獄罪人의게 傳道하여 確實한 信仰 悔改가 分明하면, 何人 男女를 莫論하고 獄官의 承認을 請하여 執行할 수 있나니라(제12장, 2절, 3조, 2).

4. 주의 만찬 중심의 주일예배를 강조하였다.

첫째, 일요일을 성찬예배일로 인식하였다(제12장, 3절, 1조). 구약교회의 5대 제법(祭法) 곧 번제(燔祭), 평제(平祭), 소제(素祭), 죄제(罪祭), 건제(愆祭)가 신약교회에서는 찬송, 기도, 헌금, 성찬, 성경 설교로 바뀌었으며, 안식일 대신 7일중 수일(首日) 즉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로 바뀌었으며, “주님이 일차(一次) 자기를 희생의 제사를 헌(獻)하사 죄를 속(贖)하시고(히 9:26하)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주님의 성찬예배로 5대 제전(祭典)을 대신하였다.”고 하였다. 또 “구약예전은 신약의 영자(影子, 그림자)니, 할례는 신(身)의 사(事)요, 침례는 신심(身心)의 사(事)이며, 제례는 의식(儀式)이오, 성찬예배는 영(靈)의 사(事)이다.”고 하였다(제12장, 1절).

둘째, 초대교회에서의 주일예배는 떡을 떼기 위한 모임이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3) 주의晚餐 - 主日禮拜는 初代教會 創立日로부터 始作한바 主님의 死中復活을 記念하는 無酵餅과 葡萄汁 齋으로 主님의 살과 피를 代身하여 祝辭하고 浸禮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參與하여 主님의 十字架 犧牲祭를 記念하는 聖禮이니 初代教會에서 安息日을 바리고 主日禮拜가 主的晚餐으로 創立하였다. “七日中 首日에 我等이 餅을 擘하려 하여 集하였더니” (行 20:7). 日曜集會는 餅을 擘하기 위하여 모였음이라. “恒常 使徒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交際하며 餅을 떼어 먹으며 祈禱하기를 務하더라” (行 2:42). 此는 곧 五旬節에 聖神降臨日, 그리스도인 浸禮 始作日, 그리스도의 教會 創立日, 主日禮拜에 聖餐式한 것이다. 그런고로 모든 集會中에 主日禮拜가 此聖禮로 由하여 聖禮中 首位되는 聖會로 嚴守하는 것이다(제6장, 2절, 6조, 1).

셋째, 주의 만찬은 우리 주님이 마지막 유언으로 명령하신 것임을 인식하였다.

使徒들이 主的 遺言의 命令을 受하였음으로 教會를 始作하면서 主日인 日曜日 集會는 主的晚餐禮拜로 實行順從한 것을 聖書中에서 明白히 發見하였음으로 우리 그리스도의 教會에서는 그대로 聖書的으로 主的 命令을 遵行하여 安息日이 안이고 곧 禧日에 神靈과 眞理인 十字架의 記念으로 聖餐의 禮拜를 奉行할지니라(제12장, 3절, 1조, 5).

넷째, 주의 만찬의 집례는 목사, 장로, 집사가 집행할 것이나,
만일 교직자가 없으면 그리스도인들이 집행하여도 무방하
다고 하였다.

新約時代 教會創立日인 日曜日에 主님의 遺言이며 命令을 受한 使徒들이 遵
守하여 執行하였고(行 2:42), 바울 使徒도 主께 受한 命令을(고전 11:23) 各教會
에서 執行하도록 하였으니, 牧師, 長老, 執事가 執行할 것이오, 萬一 敎職者가 없
으면, 그리스도인들이 主日에 執行하면 된다. 主日是 浸禮 받은 信者가 禮拜한
다. 緣故로 初代教會에서는 安息日 翌日是 七日中 首日에 餅을 擘하는 禮拜集會
(行 20:7)하였음으로, 安息日이 廢하고 主日禮拜가 始作된 것이니, 家庭에서도
信者들이 主日禮拜에 餅을 誠意로 擘하여 食하고 上帝를 讚頌하였다. 今日에도
우리 그리스도의 教會에서 主日是 聖餐禮拜인 故로 牧師가 없는 教會에서는 平
信徒들만 모여서 信徒中의 一人이 集禮한다. 大東亞戰爭時와 6.25事變 當時에
各家庭에서 或防空壕에서 山野江邊에서 主日を 當하면 家族的으로 個人的으로
聖餐禮拜를 主日마다 奉行하였다. 牧師가 없으면 家族 個人이 禮拜하지 못할 法
이 聖書中에 無한 同時에 信者가 集禮할 것이니라(제12장, 3절, 2조, 1).

다섯째, 주의 만찬에 참여할 자격에 대해서 논하였다.

主日是 男女聖徒가 여호와 上帝께 神靈과 眞理로서 聖晚餐禮拜를 奉行하는 것이 聖旨의 禮典이다. 그러나 聖書中에 注意의 警戒가 嚴然하다(고전 11:30-32). 또 그렇타고 해서 主日 聖餐禮拜를 廢할 수 없는 것일 것이다. 然則 聖書대로 資格者는 堂堂히 參與할 것이니라. 1) 浸禮를 受한 者로서 信仰生涯中에 있는 者. 2) 良心으로 回顧 곧 自醒하고 悔改한 後에야 食하고 飲할 것이오. 3) 主의 몸과 피를 分辨하여 十字架의 釘死와 復活을 記念할 者이니라. 以上 三種의 以外에 處地에서는 絶對로 參與치 못할지니라(제12장, 3절, 2조, 2).

1953년 설교내용

- 진정한 예배: 성경에 계시된 예배(3월 1일)
- 방언에 대하여: 완전치 못함. 온전한 것이 올 때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그친다고 함. 방언하여야 구원받는다라는 가르침은 잘못됨(3월 5일)
- 4자에 대한 새로운 인식: 구원에 필요한 4단계(믿음, 회개, 신앙고백, 침례). 오직 믿음만이 필요하다는 가르침은 성경 전체를 살피지 못한 결과임(4월 12일).
- 교회는 하나: 그리스도께서 세운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이름으로 세워진 단 하나. 성경에 계시된 온전한 교회, 예수의 피로 값 주고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은 오직 하나뿐인 그리스도의 교회(4월 19일).
-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성찬을 행하지 아니하면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됨. 성찬을 행함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약의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음. 교회는 천국을 예표한 것임. 교회 안에 천국이 있고, 신자 안에 천국이 있음(4월 26일).
- 성경적 과학: 하나님의 말씀은 일점일획도 오류가 없는 완전무결. 구원을 얻는데 오류가 없는 완전한 책이며 구원의 지침서(5월 24일).
- 영으로 살자: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인 영성을 회복(9월 23일).

1954년 유무악기 통합을 시도한 편지공문

초청장

주의 은혜와 평강이 귀하와 같이 하심을 기원합니다. 초대신약교회로 환원하기를 기원하는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오늘날 한 성령 안에서 영감으로 기록된 한 성경을 인하여 그 주장하는 바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남으로 교회 자체가 진리에서 벗어나 갈등과 분쟁 및 분열이 속발(續發)하여 있는바, 신앙이 있는 자로 하여금 탄식을 금치 못하게 함으로 한 곳에 회집하여 신앙실천의 일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기의 발안(發案)을 귀하에게 통지하오니 착오없이 이행하기를 갈망하나이다.

기(記)

1. 교회 일치에 관한 건
2. 구원에 관한 건
3. 성서 해석에 관한 건
4. 교회 조직에 관한 건

장소 : 선화 그리스도의 교회(대전시 선화동 2구 35번지)

일시 : 1954년 6월 14일 오후 7시부터 6월 19일 오후 5시까지

여비는 각자 부담하시고 식사는 일체 무료 제공함.

1954년 6월 7일

발기인 김진영 목사, 성낙소 목사



김은석 목사는 이 기간에 전남에 내려가 계셨다. 대전 선화동 교회는 김은석 목사가 1951년 늦은 가을에 설립하고 건축하여 시무하다가 1954년 4월 11일 사임하였고, 유호성 전도사를 2대 목회자로 세웠다. 1960년 초에는 고광석 목사가, 70년대에는 김치연 목사가 시무하였다.

환경(還京)후 목회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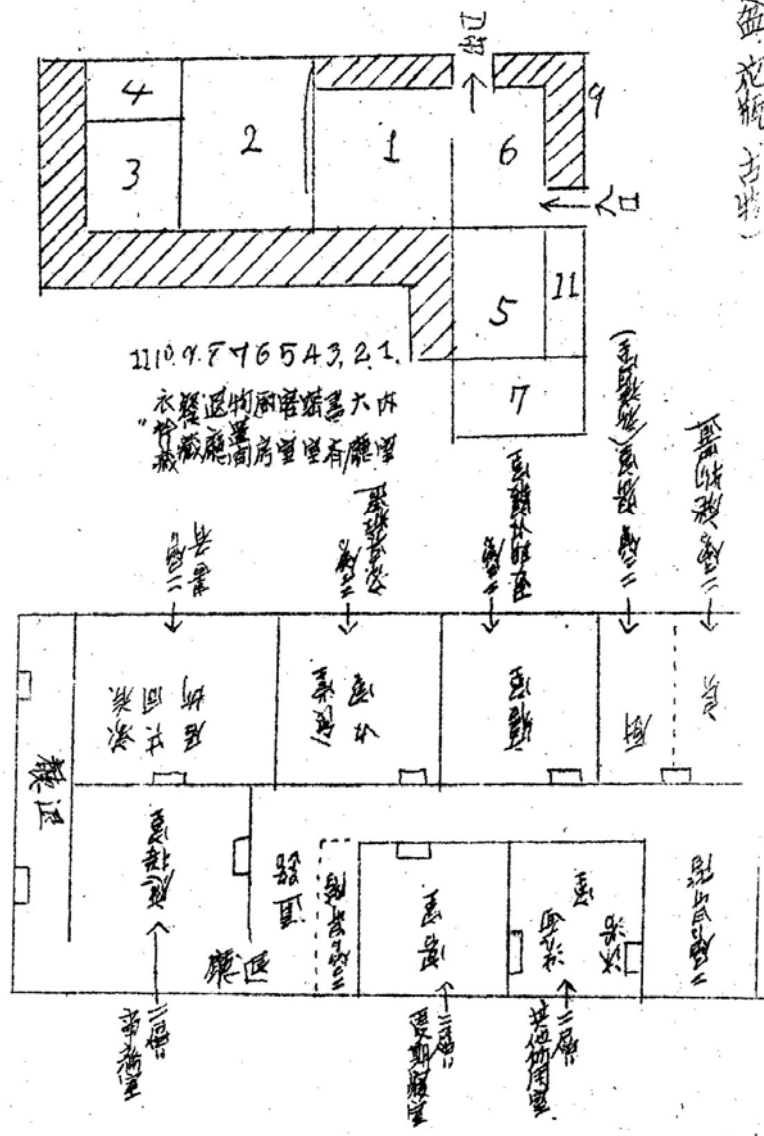
(1) 聖洞 그리스도교회 還京後 洗禮人

朴鎮蕙	32才主婦	1952年五月十一日	洗禮 元曉路
文在性	22才小女	〃 〃 〃	洗禮 金海島
金分伊	50才主婦	〃 〃 〃	洗禮 玉仁洞
池干蘭	59才主婦	1952年七月十五日	洗禮 田需洞
李慶順	36才主婦	〃 〃 〃	洗禮 玉仁洞
李春植	17才小女	〃 〃 〃	洗禮 社稷洞
朴三福	22才小女	〃 〃 〃	洗禮 社稷洞
李氏	女	〃 〃 〃	洗禮
金慶玉	16才女	1952年十一月二日	洗禮 社稷洞
長炳珠	20才女	〃 〃 〃	洗禮 社稷洞
金奇池	33才女	〃 〃 〃	洗禮 元曉路
權家禮	43才女	〃 〃 〃	洗禮 社稷洞
金柱	69才女	〃 〃 〃	洗禮 社稷洞
跨士分	73才女	1953年七月二日	洗禮 慶南巨倉
李春和	62才女	〃 〃 〃	洗禮 通仁洞
金南均	20才男	〃 〃 〃	洗禮 江義邑
沈鉉浩	28才女	九月二七日	洗禮 社稷洞
李銀星	25才女	〃 〃 〃	洗禮 社稷洞

필동동 그리스도교회 還京後
연도별 세례교인 현황

연도	수세자수	총수세자
1952	14	
53	7	
54	8	
55	4	
56	8	
57	8	
58	12	
59	56	
60	7	
61	13	
62	3	
64	2	

（花盤・花瓶・古物）



明 証

金氏二年州七名依道州 三十八名以決心十三名出席
 李氏二年州五十九名依道州 三十一名以決心三名出席
 朴氏二年州八十一名依道州 四十一名以決心二十名出席
 殷氏二年州九十一名依道州 三十五名以決心二十一名出席

例 凡

成氏	朴氏	李氏	金氏	月別
1/3	1/4	2/7	2/15	一月
2/6	3/10	2/7	2/9	二月
1/10	2/9	2/5	1/2	三月
3/11	5/15	2/8	3/10	四月
1/3	0/4	0/7	0/20	五月
4/28	4/26	4/6	3/7	七月
0/10	3/13	2/2	4/15	七月
2/7	3/28	2/13	1/7	八月
1/7	2/3	2/15	8/10	九月
1/10	2/9	0/1	0/0	十月
3/5	1/2	2/4	3/10	十一月
5/7	2/10	2/15	1/2	十二月
2/9	2/10	3/15	3/16	合計

凡人依道成績簿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1957년경)



1959년경 사진

앞줄 우측부터 성낙소 목사 부부, 이신 목사, 이종만 목사, 성수
경 목사. 뒷줄 최승운, 조충연, 채원석, 김진문, 안홍모, 김묘암,
지간난, 이경순, 김임순, 박신에 등



제1회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회 기념사진(1959년)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
좌측부터 이종만, 정인소(박사), 성낙소, 이신, 장성만
(1961년 8월 17일, 부강 부영초등학교 교정)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
앞줄 우측부터 힐 요한, 장성만, 박재관, 김동열, 이종만,
정인소(박사). 그 뒤에 성낙소 목사
(1961년 8월 17일, 부강 부영초등학교 교정)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
(1961년 8월 17일,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그리스도의 교회 연합수련회
(1961년 8월 17일, 부강 그리스도의 교회 예배당)





강화요양원 및 필운동 그리스도의 교회

